



## 금호석유화학, 흰지팡이 제작 후원금 전달

금호석유화학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흰지팡이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날 금호석유화학은 5400만원 상당의 흰지팡이 제작 후원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이신범 시각장애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 KBI그룹, 경주지역 인재육성·교육발전 지원

KBI그룹이 경주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5일 KBI그룹에 따르면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오른쪽)은 지난 14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자격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별도로 전달했다. /KBI그룹



##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 현판 보존 기념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14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 & 김옥길홀 현판 보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 4분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4일 전주 본점 3층 종회의실에서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경영 및 영업성과를 공유하며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4분기 경영전략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전북은행

## KT&amp;G 상상마당

## '상상실현페스티벌 부산' 개최

KT&G 상상마당이 아티스트를 꿈꾸는 대학생의 성장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 상상실현페스티벌 부산 with 상상유니브'를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번 행사는 KT&G의 대학생 성장 지원 플랫폼인 상상유니브가 참여해 대학생들과 만드는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페스티벌이라는 의미의 '유니버시티'를 주제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전자, '세계 식량의 날' 캠페인 영상 공개

## 기아극복 메시지 전파... '모두의 더 나은 삶' 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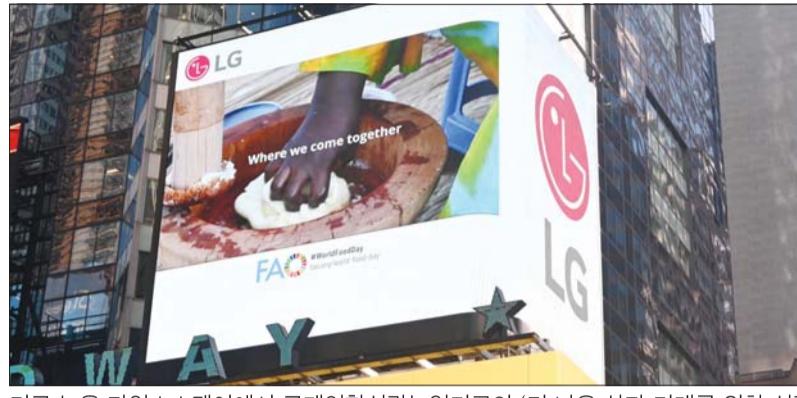
## 美·英 주요 옥외전광판 상영

## 배고프지 않을 권리 강조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글로벌 기아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10일(현지시각)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옥외전광판에서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LG전자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LG 희망스크린'의 일환이다. 'LG 희망스크린'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뉴욕과 런던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서 국제기구와 NGO(비정부기구)의 공의 영상을 상영해 환경 보호, 재해 구호, 유엔총회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식량권' 영상이 상영되는 모습. /LG전자

원해왔다.

한편, LG전자는 세계 곳곳에서 배고프지 않을 권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며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인도 범인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청소년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프스굿 영양 식단' 캠페인

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 '행복의 운기' ▲멕시코 '길거리 아침식사 기부' ▲인도네시아 'LG 러브스 앤 케어스' ▲이라크 '식사 소포 배달'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취약 계층 대상 식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ja\_tea@metroseoul.co.kr

## 한화그룹

## "점자달력 신청하세요"

한화그룹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2025년 점자달력'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한화는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2025년 점자달력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달력에는 자폐인의 재능 재활을 돋는 사회적기업 '오타스타'와의 특별한 협업을 통한 12개의 작품이 매월 소개된다.

달력 신청은 한화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된다. /구남영 기자 ysw@

## LG디스플레이

## 노트북 패널 PCR 인증

LG디스플레이의 고성능 노트북용 디스플레이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의 14인치 고성능 노트북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탄소 배출 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TUV 라인란드의 PCR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노트북용 패널 생산, 사용, 폐기예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 대비 약 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남영 기자

## 김태균 동탑산업훈장·김윤선 산업포장 수상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

산자부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안덕근 장관 "국제표준 개발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종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상 수여식에서는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해온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차세대 전력망 기술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 등으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EC)는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삼성전자 마스터〉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김윤선  
삼성전자 마스터

해 "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표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을 시작으로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표준 주간'을 이날부터 18일 까지 운영한다. 표준주간에는 ▲사이즈 코리아 포럼 총회 ▲참조표준 사업화 우수성과 발표회 ▲R&D 표준 연계 우수성과 발표회 ▲국가 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회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국민투표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정승렬 "경계없는 교육생태계 선도"

〈국민대 총장〉

## 국민대 개교 78주년 기념식

정총장 등 내외빈 300여명 참석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이 개교 78년을 맞아 학문적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담론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대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 14일 본부관 학술 회의장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정총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렬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교내구성원 및 내외빈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렬 총장은 "임시정부 주축이었던 해공 신의회 선생이 최초로 설립하신 아래, 성곡 김성곤 선생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꾸준히 발전의 역사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를 수 있었



국민대가 지난 14일 본부관 학술 회의장에서 개최한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정승렬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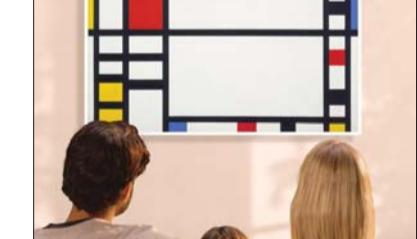
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각 분야에서 우리 대학이 학문적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담론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총장은 "궁극적으로 경계없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국민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hnj@

## 인사

◆서울신문 ◇이사△콘텐츠본부장(편집인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국장△편집국장 김상연 △뉴미디어 국장 박상숙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 삼성 아트스토어

## 수련 등 27점 명작 선봬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 아트스토어'를 통해 근현대 미술 컬렉션 27점의 명작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MoMA 컬렉션에는 ▲피에트 몬드리안 '트리팔가 광장' ▲한나 헤흐 '무제(다다)' ▲조지아 오크리 '저녁 별 III' ▲클로드 모네 '수련' 등 업선된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오르세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뿐 아니라 살바도르 달리와 장 미셸 바스키아 등 미술 거장의 작품 약 25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